

삼복철에 어려오는 애민헌신의 자욱

소불도 구부러든다는 삼복철이다. 나라의 곳곳에 있는 물놀이장이나 해수욕장은 복더위를 피해는 많은 사람들로 북비고 있다.

퍼서 온 사람들을 보느라니 삼복의 무더위와 한겨울의 강추위도 가깝음이 현지지도의 길에 제시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로고가 안겨온다.

주제 101 (2012)년 7월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삼복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하루였다. 찌는듯한 그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찾으셨다.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싶으시여 무더운 날도 개의치 않으시고 또다시 이곳을 찾으셨던 것이다.

류경원의 현관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류경원이 특색있게 건설되었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류경원건설장에 찾아와 전경도안에서 해설을 들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그동안 플라보코 달라졌다가 높이 평가하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봉사활동에서 사소한 부족점이 있을세라 깊이 관상하시며 류경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다.

홀러내리는 땀으로 옷은 축축히 젖어있었지만 그이께서는 4층의 식당에도 들리시여 봉사계획에 대해 알아보시고 여기는 목욕탕이기때문에 시원한 청량음료와 국수가 기본이라고, 그런것만큼 국수의 질을 높이고 청량음료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아직 잔손질을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당부하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야의빙상장으로 돌아보시면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삼복철에도 스케트를 타니 회한하고 멋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땀으로 옷을 흠뻑 적시며 인민야의빙상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원과 인민야의빙상장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것만큼 형식보다 내용이 기본이라고 하시며 준공을 서두르시기를 당부하셨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이듬해인 주제 102(2013)년의 삼복철기간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의 자욱을 이어나가셨다.

그해 8월 어느날 삼복의 무더위가 대지를 달구던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삼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셨다.

건설현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일군이 삼복철에만이라도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씀드리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무

가 나에게 삼복철에는 헌지지도를 하러 다니는것을 삼가해달라고 하는데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하여도 내가 인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다시금 헌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그해의 삼복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과 평양체육관개건공사장에도 크나큰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지난해 삼복철은 레년에 보기 드문 폭심한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려 밤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어있었다. 그러나 낮기운이 야 오죽하였는가.

바로 이런 무더위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안남도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헌지지도 하시었다.

낮은 산밭들과 험한 경로를 헤치며 양덕군 온정리대리의 온천골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온도가 80°C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팔팔 솟구치는 용출구에 이르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가서지신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산이 높고 숲이 무성하여 풍기 좋고 풍치수려한 양덕군은 온천휴양소, 료양소들을 꾸리기에 적중하고 하시면서 종합리관을 건설할 위치를 잡아주시고 야외온천도 할수 있게 실내욕탕뿐 아니라 야외온탕도 꾸리고 개별온탕, 대중온탕, 치료온탕 등 각종 온천욕복사를 할수 있게 할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었다.

그리고 온천을 찾는 인민들이 교통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도역도 산간철도역으로서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건설하고 도로포장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열사부품, 헌신적 북투정신을 지니시고 그 길에서 영도자이요 헌신자의 자욱을 새기게 해주신 삼복철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금방석과 바늘방석.
금으로 만든 방석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오늘 이 말은 사람들속에서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뜻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바늘방석은 바늘을 꽂아두는 방석모양으로 자그마하게 만든 물건으로서 앉아있기가 불편한 자리를 형용하여 이르는 말이다.

공화국에서는 금방석과 바늘방석이라는 이 말에도 철세위원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어려여었다.

삼복철인 지금 사람들은 기상관측이래 처음 보는 고열과 무더위가 지속되었던 지난해의 삼복철을 잊지 못했다.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등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고있던 그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땀으로 온몸을 적시시며 인민을 위한 로고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헌지지도하신 수십여개 단원들과가운데는 평양무제도전차공장도 있다.

자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새형의 무제도전차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제는 만시름이 풀리니라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날에 인민들이 버스정류소에 서서 기다리는것을 볼때면 자신께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것이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저녁 무제도전차시 운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의 의장품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리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금방석과 바늘방석!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폭염이 휩쓰는 삼복철에도 애민헌신의 자욱을 이어나가고 인민은 국가의 혜택아래 행복의 금방석에 앉아 기쁨과 환희의 웃음소리를 터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현실이다.

뒤겨져불수록 인민위해 바치는 철세위원의 헌신의 자욱들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구비품, 편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고원대학을 찾으셨던 그날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

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듯 그려진다고 환하게 웃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헌지를 돌아보시면서 명당자리에 러점도 잡아주시었으며 몸소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연풍과학자휴양소에다 과학자들에게 대한 숭고한 사랑이 깃들여 있다.

수년전 10월 어느날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크나큰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살림집, 창천거리, 온파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평명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삼마구락부를 비롯한 인민을 위한 수많은 창조물들, 행복의 금방석들이 마련되었다.

지금 융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낸 삼지연군과 원산갈매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의 건설이 완공되면 인민의 웃음소리는 완만나 더 높아지겠는가.

인민들에게 행복의 금방석을 더 많이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철주야의 헌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신다.

2년전 새해를 맞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이 어려운다.

그이께서는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뜻을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진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고 쉬임없이 애민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호모의 정이 강산에 차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에 특별히 큰 힘을 넣고있는 공화국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있다.

교실을 비롯한 교육시설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좋아야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수 있다.

교실은 교육자들의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기본교육시설이다.

오늘날 교실은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과 수단,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교수목적과 교수방식을 실현할수 있는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로 발전하고있다.

우리 나라를 인재의 나라, 교육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학과 학교들의 교실을 비롯한 교육시설들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평양고원대학만 보더라도 가상현실기술, 교육조종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하여 첨단수준의 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커다란 전변을 이룩하고있다.

지난해 1월 새로 개건된 이 대학을 헌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다.

그이께서는 모든 교실들을 전문실용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실들로 잘 꾸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3D화상입력장치와 3D인체, 전자철관을 비롯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수구비품, 편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고원대학을 돌

교육환경과 인재
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듯 그려진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평양고원대학의 훌륭한 면모는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기술이신 그의 크나큰 심혈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다고, 모든 합한 땅에서 아름답게 꽃이 자랄수 있는것처럼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기름진 땅에서 싹이 잘 움트고 품들어 나무를 키워야 쓸모있는 재목이 된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일치하도록 할것을 구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을 현대화하며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도록 할데 대하여 그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평양고원대학이 교실들의 다기능화, 정보화를 실현한 교정으로 변모되게 되었다.

후대들을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대학들을 비롯한 학

교들이 일신되고있다.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가 농촌학교의 본보기로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각종 학교들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해빛넘치는 교정에서 모든 교육자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재양성과 학과학습에 전진전력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의 은혜로운 손길이 따뜻이 미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와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에서 나라와 민족의 인재들이 자라고있다.

안성복

대함없는 회묘의 마음을 담아

나무공예 《평화의 비둘기》

주제 104 (2015)년 8월 팔레스티나국가 대령 마흐무드 아바스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드린 선물이다.

선물은 팔레스티나에서 유명한 자재로 만든 예물의 중심에 비둘기를 형성한 공예품이다.

우리 나라 주재 팔레스티나대사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팔레스티나의 마흐무드 아바스대통령각하의 조선인민의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존경하는 김정일원수각하께 자신과 팔레스티나지도부와 인민이 드리는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선물을 전해드릴것을 나에게 위임하였습니이다. 친선적인 조선지도부와 인민에게 보다 큰 승리와 진보, 영광이 있을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평양고원대학만 보더라도 가상현실기술, 교육조종기술을 비롯한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하여 첨단수준의 교육을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커다란 전변을 이룩하고있다.

지난해 1월 새로 개건된 이 대학을 헌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화정형과 교수교양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다.

그이께서는 모든 교실들을 전문실용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실들로 잘 꾸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3D화상입력장치와 3D인체, 전자철관을 비롯한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수구비품, 편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고원대학을 돌

재능있는 건축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고층아파트의 층계를 오르시여

주제 102 (2013)년 9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헌지지도하시었다.

살림집들의 내부를 돌아보시고 복도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승강기가 있는 곳을 보시며 승강기가 동작하는가 물으시었다. 그때 승강기는 조립을 마치고 오르내리면서 조종시범을 하고있었다.

그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휴식장이 몇층에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17층에 있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거기에 올라가보겠다고 하시며 층계를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17층에 오르내리시며 조종시범을 하고있었다.

그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휴식장이 몇층에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17층에 있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거기에 올라가보겠다고 하시며 층계를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17층에 오르내리시며 조종시범을 하고있었다.

그이께서 오르신 계단은 272개였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위성초중등학교가 번듯하게 자리잡고있다. 다기능화된 교실과 실험실습실, 넓은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교육환경과 조건이 나무랄데 없다.

그이께서 1층에 있는 한 교실에 들리시었을 때 272개였다. 교실의 시공정형과

교구구비품들을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여 한 일군에게 책상위에 원주필을 놓으라고 하시었다. 인종이 일군이 책상위에 원주필을 놓았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책상앞판을 드시어 원주필이 걸터앉아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라고, 학생들이 서랍안의 책과 학용품들을 꺼내느라고 옷판을 들면 학용품들이 떨어진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책상앞판의 앞부분에 락을 지어주시지 않았는데 락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힘을 파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상위에 놓은 연필이나 원주필 같은것이 조금만 다쳐도 바닥에 떨어질수 있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